

# 경허 스님, 그 끝없는 '깊이'의 정체는?



**나를 처라(큰스님들의 법문집)**  
경허 스님 지음  
만해 스님 엮음  
성우 스님 옮김  
김홍희 사진  
노마드북스  
1만2천원

## 만해 스님이 엮은 '경허집' 우리말로 옮겨

“부처님 증생이니 내 알 바 아니요. 평생을 그저 취한 듯 미친 듯 보내내려네. 때로 일 없이 한가로이 바라보니 구름에 갇힌 먼 산은 층층이 푸르구나.”(‘취한 듯 미친 듯’ 전문)  
한국 근세 선불교의 증흥조인 경허 스님(1849~1912). 유불선에 통달한 뛰어난 학식으로 당대 선종(禪宗)을 일으켰던 스님은, 술에 만취해 법당에 오르거나 설법 중 바람같이 자취를 감추기도 하고, 문동병에 걸린 여자와 몇 달을 동침하는 등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경허 스님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기이한 행동 이면에 숨겨진 뜻을 읽어야 한다. 특히 스님이 남긴 법문과 시문을 곁들여 보면 깨달음을 실천하려 했던 스님의 삶과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

음을 알 수 있다.  
《나를 처라》는 만해 스님이 전국 도처에 흩어져 있는 경허 스님의 시와 사찰 주변에 새겨진 글 110여 편을 모아 1943년에 발간한 <경허집>을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만해 스님은 “경허 스님의 글들은 술집과 저잣거리에서 읊조렸으며 저속하지 않으며 비바람 눈보라 치는 텅 빈 산에서 붓을 잡아도 세간을 벗어난 것만도 아니어서, 문장마다 선(禪)이요 구절마다 법이며 그 법적이 어떠한 것을 논할 것도 없이 실로 기이한 글이고 시구다”라고 평했다.  
“저리도록 쓸쓸한 가을바람/ 밤은 깊어가도 잠은 오지 않고/ 저 별레는 어이 그리 슬퍼 울어/ 내 배갓머리를 적시게 하고”라며 수행자로서는 긴 고독감과 비애감을 털어놓기도 하고, “죽어도 죽음이 아닌 것이/ 우리의 본래면목이거늘/ 하물며 어떻게 생을 함부로 살려고 하는가”라며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 어린 질책을 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스님의 글에서 귀를 쫓듯 세우고 들어야 할 가르침은 ‘마음공부’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화’를 잡을 수 있고 ‘복’을 가져오며 ‘사람의 도리’를 다할 수 있다는 스님은 “아무리 경을 많이 읽고 외어도 이 마음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세상만사를 다 잊어버리고 항상 내 마음을 찾아보라. 그리고 듣고 말하는 일체의 형상



한국 근세 선불교의 증흥조인 경허 스님(1849~1912). 스님이 남긴 글들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다.

을 생각하라”고 강조한다.  
시인이기도 한 성우 스님(불교 TV 회장)은 경허 스님의 글을 우리말로 옮긴 후 “자신을 속이지 않는 마음, 자신을 쳐다보게 하는 그 마음을 정화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경허집>이라고 평한다.

책 뒤편에는 한암 스님이 쓴 ‘경허 스님 일대기’를 실어 스님의 생애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고, 사진작가 김홍희씨의 사진이 어우러져 글 읽는 맛을 더한다.

진정 소유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경허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작가 김홍희씨의 사진은 경허 스님의 유려한 글과 어우러져 사색의 깊이를 더한다.



## 중국 선종사의 흐름 한눈에

중국 선종(禪宗)의 역사는 달마 선사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이 가르침은 혜가-승찬-도신-홍인-혜능 선사로 이어져 중국 선종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선불교에 대한 ‘상식’이다.

그러나 이부키 아츠시(伊吹敦) 교수(일본 토요대 인도철학과)는 <새롭게 다시 쓰는 중국 선의 역사>에서 이 같은 계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부키 교수는 선종의 등장은 당시 중국 불교계의 내적 욕구에 부응한 필연적인 결과였으며, 선종의 사상적 기원 역시 초조인 달마 선사보다 혜가를 비롯한 제자들의 활동이 주축이 되었다고 말한다. 더불어 초기 선종의 흐름 역시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여러 집단들에 의해 이어졌다고 이부키 교수는 강조한다.

또한 후대 선종에서는 무시되어 버린 북종(北宗)과 우두종(牛頭宗) 정종(淨衆宗) 등의 흐름을 짚어보며 다양한 선종의 역사를 살피고 있다.

이처럼 이부키 교수는 전통적인 선종사의 이해에서 벗어나 선종이 각 시대와 교섭하면서 어떻게 사상을 형성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서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의 원저가 ‘제1편 선의 흐름(중국)’ ‘제2편 선의 흐름(일본)’ ‘제3편 선의 현재’로 이뤄진 것도 이러한 집필 관점에서 기인한다. <새롭게 다시 쓰는 중국 선의 역사>는 이 중 제1편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책을 옮긴 최연식 교수(목포대)는 “이 책은 20세기 이후 축적된 선종사에 대한 연구 성과를 망라해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훌륭한 개설서이자 입문서”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새롭게 다시 쓰는 중국 선의 역사**  
이부키 아츠시 지음  
최연식 옮김  
대숲바람  
1만2천원



**한국문학과 불교문화**  
유림하 지음  
역락  
1만5천원

## 한국문학에서 불교의 위치는?

한국문학에서 ‘불교’는 어떤 위치일까? 시와 소설의 다양한 소재를 제공하는 존재일까 아니면 우리의 인식과 사상의 기저를 이루는 원천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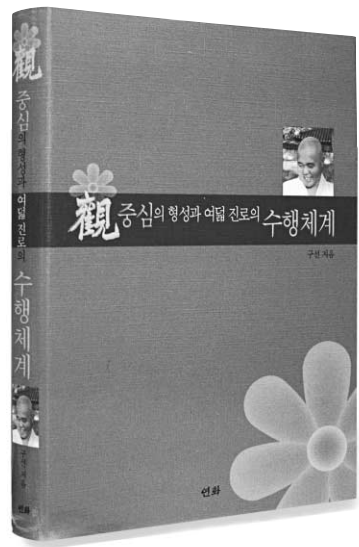
문학평론가 유림하씨는 <한국문학과 불교문화>에서 “한국 근대문학의 전통에서 불교문화의 웅숭깊은 실체는 그 얼굴을 드러내기보다 서구의 물질적 가치와 자본의 힘에 맞서는 마음의 활력으로 윤희된 느낌이 짙다”고 말한다.

“그동안 우리는 근대문학의 성과와 평가함에 있어 불교문화의 주변을 자주 간과하거나 그 특징을 찾아내려고 해도 크게 의의를 부여하지 않았습다. 불교라는 문화의 주변이 도드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폭발력과 함의(含意)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은이는 작가의 사상 흐름 속에서 불교 전통의 향취를 찾기도 하고 작품 속에서 다뤄진 불교 사상을 찾아내기도 한다.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에 나타난 ‘님’에서는 스스로 수립한 자기 윤리이자 절대적인 사랑을 낳는 마음을, 불교를 상상력의 원천으로 삼았던 미당 서정주의 문학세계에서는 불성(佛性)과 자비심을 읽는다. 김달진(金達鎭)의 시에 나타나는 ‘깨달음의 고요한 경지’에 이른 화자의 모습에서는 지은이 자신이 시에서 평생 표현하고자 했던 마음의 행로가 무엇인지를 짐작해 본다. 또한 김동리의 <등신불> 최인훈의 <회색인>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 한국소설의 나타나는 불교정신이 무엇인지도 살펴본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지은이는 “작가의 상상과 사유의 낮익은 기층 하나가 불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다만 지은이 자신도 지적했듯이 작가의 불교관과 불교정신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대승불교 최고의 수행체계 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구선 지음 / 312쪽 / 값 18,000원

**한 경계에 집착하면 그 죄가 수미산 같고,  
한 경계를 버리면 사비지옥에 떨어진다.  
이러할 때 그 한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한 경계를 절실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으며  
그러면 나와 경계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맞출 수 있다.  
수행자라면 한 경계를 통해 여덟 진로의 수행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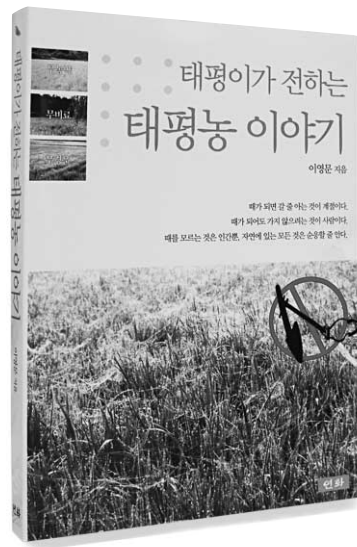
여덟 가지 진로의 수행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하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수레바퀴에 비유된다.

바퀴의 살이 하나만 빠져도 바퀴 전체가 찌그러지듯이, 여덟 가지 진로의 수행은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해서 안 된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는 필자가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이며, 또한 팔 년 동안 후인들을 지도하면서 얻어진 결과들이다. 때문에 누구라도 뒤에서 체득할 수 있는 법들이다. 수행자가 비록 자성의 공(空)함을 인식했다더라도 이처럼 여덟 가지 진로로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제도하는 것과 주변 경계와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여덟 가지 일로서 원만해지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깨달음만을 추구하고 그 이외의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따가운 질책을 가한다. 특히 수행한다는 명목을 내세워서 또 다른 존재와 원만하게 어울리지 못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한다. 한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한 경계를 절실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으며 경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맞출 수 있다고 말한다. 목전에 처해진 한 경계를 그냥 도외시 하지 말고 그를 통해 여덟 진로로 자기를 발전시켜 갈 것을 주장한다.

## 태평이가 전하는 태평농 이야기



이영문 지음 / 368쪽 / 값 10,000원

**‘때가 되어 갈 줄 아는 것이 깨달이고  
때가 되어도 가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이다.  
때를 모르는 것은 인간 뿐,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순응할 줄 안다.’**

이 책은 농사를 통해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상도 외딴 곳 별학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태평꾼 이영문이 전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만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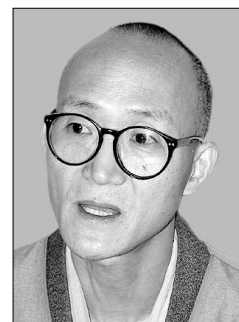
**태평농법!!**  
이것은 단순히 농사짓는 방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는 이미 태평농법을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흙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라고 주장한다. 적게 먹는 즐거움도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과 삶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사람과 자연, 아니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가 어찌 농사짓는 법으로 만족할 사람인가? 그에게 모든 것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기에 외부로부터 단절당한 삶이라는 문화권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 최진룡(국립경상대학교 농대 교수)

## 티베트 수행의 결정판 ‘람림’ 우리말로 완역

■ ‘깨달음에 이르는 길’ 출간 청전 스님



티베트 수행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람림(보리도차제론)>이 우리말로 완역돼 나왔다. 번역을 맡은 이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18년째 수행 중인 청전 스님(사진). 지난해에 <임보리행론> 번역본을 낸 스님은 최근 <람림> 번역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출간하고 일시 귀국했다.

12월 5일 서울 길상사에서 만난 스님은 “람림 수행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수행법”이라고 강조했다.

<람림>은 달라이 라마가 속해 있는 겐포파의 창시자인 총카파(1357~1419)가 1402년 완성한 책으로, 초발심에서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증득해 보살의 서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고 의미 전달이 어려워 외국어로 번역된 것은 중국어판과 영어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영어 번역본의 경우 15명의 학자가 15년간 매달린 끝에 지난해 12월에 선보였다. 달라이 라마에게 직접 4차례의 람림 설법을 들은 청전 스님 역시 번역을 시작한지 5년 만에 결실을 보았다. 원전에 연필로 우리말 번역을 한 자 한 자 달아 완성한 이 책은 무려 1천여 쪽에 달한다.

“람림 수행법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보리심을 계발하고, 육바라밀을 바탕으로 이타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처음 읽는 사람은 너무 쉽고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육바라밀의 정해(正解)에 따른 지관·선정·공성·인명론으로 이어지는 대단원의 전개에 찬탄과 수긍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수행 실전이 이어진다면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람살라에서도 한국 승복을 입고 생활할 정도로 한국불교에 대한 애정이 큰 청전 스님은 한국불교계를 위한 촌소리로 마다하지 않았다.

“자기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이 있음에도 일부 수행자들이 ‘간혹선 아니면 모두 의도’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정수기나 관정의식 등을 상품화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처님의 바른 법을 봐야지 종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컴퓨터나 전화, 텔레비전 등 일체의 가전제품도 없이 살고 있는 청전 스님은 6일 다시 다람살라로 돌아갔다. 히말라야 오지의 노인들에게 나눠줄 약과 영양

**깨달음에 이르는 길**  
총카파 지음 | 청전 스님 옮김  
지영사 | 4만3천원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